

한국, R&D투자 증가율 세계1위?

2004년 세계 1000대 R&D투자기업에 11사 랭크 ... 중국 따돌리기

한국의 연구개발(R&D) 투자가 2004년 큰 폭으로 늘어나며 증가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영국 무역산업부가 10월24일 발표한 <2005년 R&D 성적표>에 따르면, 한국은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LG전자 등 주요기업들이 2004년 R&D 투자를 40% 가량 늘리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.

현대자동차가 17억3000만달러를 투자하면서 2003년보다 100% 이상 급증했으며, 삼성전자는 총 44억4000만달러를 투자해 4년 사이에 77% 증가했다.

세계 1000대 R&D 투자기업에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기업 11곳이 랭크됐다.

영국의 The Times는 타이완도 R&D에 총 24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14%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타이완이 중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R&D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.

반면, 중국과 인디아기업들은 아직까지 R&D 투자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.

2004년 세계 1000대 R&D 투자기업의 총 투자는 3909억달러로 전년대비 5% 증가했는데, 다임러크라이슬러와 Pfizer가 76억9000만달러와 76억000천만달러로 1위, 2위를 차지했다.

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2004년 56억8000만달러로 21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R&D 투자에서 수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5/10/25>